차체 키우고 첨단기술 대거 탑재… 1세대 결점 완벽 보완

YG의 카톡 car talk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소비자 분석 통해 편의성 강화
전장 145㎜, 휠베이스 60㎜ ⬆
적재 공간도 30% 이상 늘어나
동급 최고수준의 공간성 확보
ADAS 탑재로 운전자 피로도 ⬇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

디 올 뉴 코나 실내모습.

'정의선의 차 '로 불리며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나가 새롭게 돌아왔다.

2017년 출시된 코나는 정의선 당시 부회장이 차량 개발을 진두지휘했으며 첫 선을 보이는 날엔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특설 무데에 직접올라 "철저한 소비자 분석을 통해 내놓은 작지만 단단한 자동차"라고 소개했다.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던 모델이다. 이번에 2세대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디 올 뉴 코나는 차체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최근 디 올 뉴 코나를 시승하면서도 1세대의 결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선 실내 공간은 4인 가족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2세대 코나는 전작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를 각각 145㎜, 60㎜ 늘이며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을 확보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했던 기어 레버는 신형 그랜저와 같은 운전대 오른쪽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덕분에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도 답답하지 않았다. 2열 공간은 소형 SUV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넉넉했다. 적재공간은 전작 대비 약 30% 이상 증대된 723L를 제공한다. 각자 차이는 있지만 4인 가족이 탑승해도 비좁거나 적재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또 운전석에서 둘러본 실내는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가로로 길게 연결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비워낸듯한 대시보드가 실내 개방감을 높였다.

코나의 주행 성능은 소형 SUV 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시승 구간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남 목포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700㎞ 구간에서 진행했다. 도심과 고속도 국도를 두루 주행했다.

시승 모델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로 최고출력 198마력, 최대토크 27.0kgf·m를 제공한다. 코나는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했다. 도심속 일상주행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으며 고속도로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는대로 빠르게 치고 올라갔다. 고속 주행에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흔들림이나 노면 진동도 크지 않았다. 다만 고속 주행시 아쉬운점은 A필러를 통해 들어오는 풍절음과 노면 소음은 불편했다.

장거리 주행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현대차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다. 소형 SUV임에도 다양한 보조 장치를 탑재했다.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드(ACC)와 차로유지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자 앞차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매끄럽게 주행을 이어갔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고속도로 구간 단속과 과속 카메라에 맞춰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 준다. 정속주행과 고속주행을 번갈아 가며 주행했지만 연비는 14.5㎞/L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복합연비(13㎞/L)를 훌쩍 뛰어넘었다.

현대차 신형 코나는 생애 첫 차나 신혼부부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첨단 기술을 선택할 경우 차값이 3000만원을 넘는다는 점은 조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코나의 판매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 ▲모던 2537만원 ▲프리미엄 2759만원 ▲인스퍼레이션 3097만원이며, 가솔린 2.0 모델 ▲모던 2468만원 ▲프리미엄 2690만원 ▲인스퍼레이션 3029만원, 하이브리드 모델 ▲모던 3119만원 ▲프리미엄 3297만원 ▲인스퍼레이션 3611만원부터 시작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GS칼텍스, 여수에 청정수소 허브 구축 나서

한국남동발전과 탄소중립사업 맞손
생산한 청정수소 여수산단 공급 예정

GS칼텍스와 한국남동발전은 8일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청정수소 관련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이상규 한국남동발전 안전기술본부장과 김정수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GS칼텍스와 한국남동발전이 청정수소 밸류체인 확대에 나선다.

GS칼텍스는 8일 경남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청정수소 생산, 공급, 활용과 기타 탄소중립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정수소는 수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하지 않거나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칼텍스는 청정수소 생산설비 구축 및 운영사업과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사업 역할을 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수소·암모니아의 도입 및 혼소 활용 등 발전 설비 구축과 운영사업을 맡기로 했다.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양사는 여수 수소허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국내 주요 수소 생산자로서 축적한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정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생산한 청정수소를 여수산단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청정수소를 활용한 발전 설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이산화탄소 다배출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여수 지역 내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양사 공동으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GS칼텍스의 탄소 감축을 위한 공동 사업 모델 발굴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도 탄소중립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고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 집중형 발전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GS칼텍스 측은 "양사의 협력은 정부의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국정과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엔솔 '에이블'-남동발전-탐라해상풍력발전

제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추진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LG에너지솔루션 사내독립기업 AVEL(에이블)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내 독립 기업 에이블(AVEL)이 지난 7일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발전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3사는 해상풍력발전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관리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AVEL은 에너지 전력망 통합관리 기술(EA·Energy Aggregation)로 ESS 등을 운영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예측 제도 관련 행정 처리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탐라해상풍력발전은 풍력 발전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분산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기술에 주목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정확한 예측과 ESS와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EA 기술이 필수적이다.

AVEL의 EA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번 MOU는 국내 전력 수급망 안정화와 VPP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현태 AVEL 대표는 "지금까지 해상풍력에너지는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ESS에 저장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해상풍력에너지 발전량의 정확한 예측과 효율적인 활용·관리로 국내 전력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애플페이 도입 앞두고 '옐로 아이폰' 선봬

아이폰14 기본·플러스 14일 출시

애플이 옐로(노란색) 색상의 아이폰 14 기본·플러스 모델(사진)을 오는 14일 국내에 선보인다. 노란색상을 채택한 아이폰은 2019년 아이폰11 시리즈 이후 4년 만이다.

애플은 아이폰14 시리즈 가운데 일반과 플러스 모델의 노란색 버전을 14일부터 전 세계 동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해 9월 출시된 모델과 사양은 물론 가격까지 동일하다. 일반 모델은 125만원,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시작한며 출고가는 ▲128기가바이트(GB) ▲256GB ▲512GB 등 저장용량에 따라 상이하다. 앞서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 ▲블루 ▲퍼플 등 색상은 출시된 상태다. 아이폰14 옐로는 노란색 알루미늄 측면과 유리 뒷면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전 주문은 국내를 비롯한 미국·중국·일본 등 60개 이상 국가에서 오는 10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된다. /허정윤 기자

LGU+ '아워게임 : LG트윈스' 30일 첫 공개

STUDIO X+U 제작 티빙 오리지널

LG유플러스는 자사 콘텐츠 제작 전담 조직인 'STUDIO X+U'가 제작한 티빙 오리지널 '아워게임 : LG트윈스'가 30일 첫 공개된다고 8일 밝혔다.

티빙 오리지널 아워게임 : LG트윈스는 LG트윈스의 2022년 시즌을 기록한 스포츠 다큐멘터리다. 한국 스포츠 사상 최다 누적 관중 3200만명을 기록한 인기 구단이자, 역대급 전력으로 28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린 LG트윈스의 '리얼한 1년'이 아워게임 : LG트윈스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LG유플러스는 아워게임 : LG트윈스 제작을 위해 지난 1년간 LG트윈스를 밀착 취재했다. 한 구단의 시즌 전체를 담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100여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총 144개 경기, 약 2500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촬영 분량만 1.2 페타바이트로, 이는 4K(UHD)급 영화 1만 3200편, 미의회 도서관 78개 분량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다. /채윤정 기자